

금호산업, 당기순이익 420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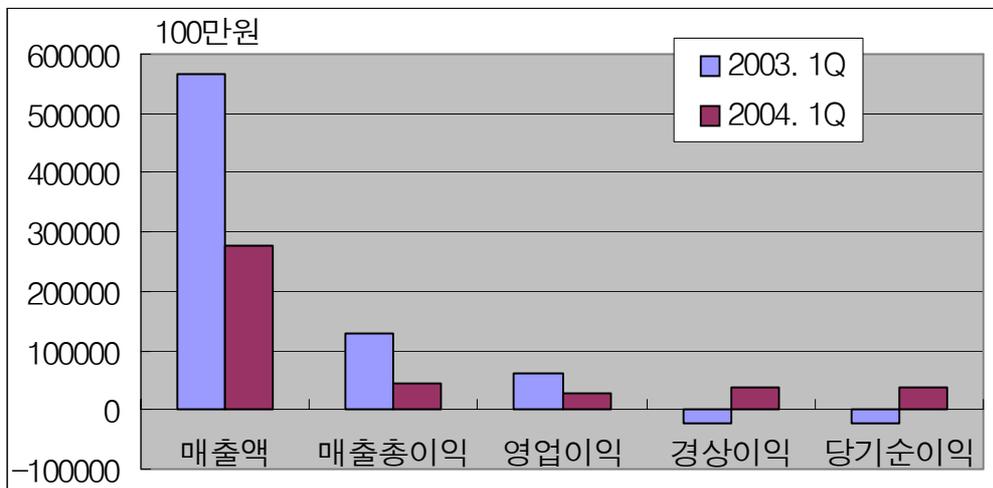
2004년 1/4분기 369억원 흑자전환 ... 부실정리로 체질개선 성공

2004년 금호산업의 1/4분기 당기순이익이 369억원으로 흑자전환해 타이어 사업부문 매각 이후 부실정리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금호산업의 매출액은 2003년 1/4분기 5666억원에서 2004년 1/4분기 276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225억원 적자에서 369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.

타이어 사업부문을 제외한 매출액은 2091억원에서 2764억원으로 32.1% 증가했고, 영업이익도 1651억원에서 2854억원으로 59.8% 증가했다.

금호산업의 타이어사업 매각 이후 영업실적 변화



† 2003년 1Q는 타이어 사업부문 포함

당기순이익은 120억원 증가한 영업이익과 383억원 증가한 지분평가이익에 힘입어 115억원 적자에서 369억원 흑자전환해 증가율이 420.2%에 육박했다.

금호산업은 2003년 6월30일 군인공제회에 타이어사업 매각 이후 첫 영업실적 발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부실정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4/19>